

역대급 수출 이뤘지만... 유가·원자재값 급등에 '무역적자'

산업부, 5월 수출입동향

수출 전년비 21% 오른 615억 달러
지난 3월 이어 수출액 역대 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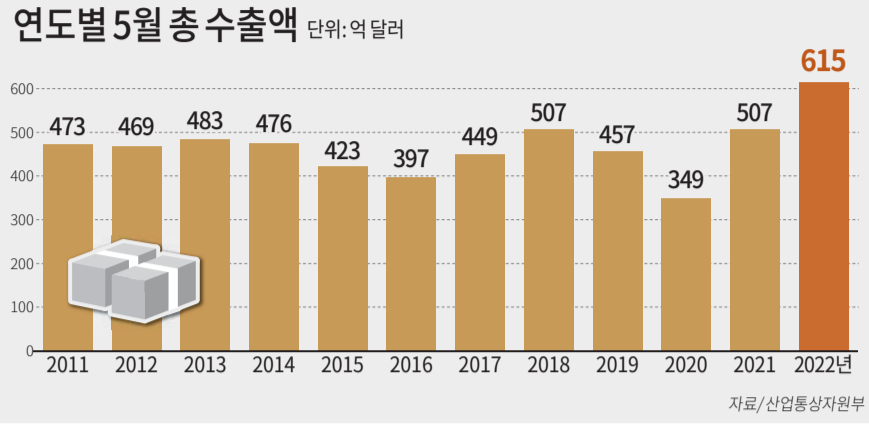
수입 전년비 32% 증가 632억 달러
3대 에너지원 수입액 147억 달러
전년대비 60억 달러 이상 상회

지난달 수출이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으나,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입 증가와 원자재가 급등 영향으로 무역수지는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2년 5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1.3% 증가한 615억 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수출액은 기존 역대 5월 중 기준 최고였던 작년 5월(507억달러)을 100억달러 이상 상회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체 월 수출액 가운데는 최고 실적을 달성한 올해 3월에 이은 역대 2위 실적으로, 2개월 만에 600억달러대를 다시 기록했다.

일평균 수출은 조업일수가 이틀 증가



한 가운데, 전년동월대비 10.7% 증가한 26억 7000만달러다. 일평균 수출 역시 분기 기준 일평균 최고치를 기록한 올해 1분기 수준의 일평균 수출액을 상회했다.

이로써 수출증가율은 2021년 3월 이후 15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19개월 연속 플러스를 지속 중이다. 특히 1988년 8월 전년동기대비 52.6% 증가한 이후 최고 증가율이던 지난해 5월 45.5%보다 20% 이상 성장하는 등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되는 추세다.

품목별로 반도체·석유화학 등 15대 주요 품목 모두 플러스를, 이 중 9개는

두 자릿수대 증가하며 상승세를 지속했다. 반도체는 23개월 연속, 석유화학·철강은 17개월, 일반기계·컴퓨터·석유제품은 15개월, 디스플레이는 14개월 연속 수출이 늘었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지역 중 CIS를 제외한 8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다. 중국이 플러스 전환된 데 더해, 아세안·미국·일본 등 주요 수출시장과 중남미·인도 수출은 14개월 연속 증가다. 대 미국 수출은 21개월 연속, 대 중남미는 19개월, 대 아세안·인도는 15개월, 대 일본은 14개월 연속 증가세다. 다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등이

포함된 CIS 수출은 감소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은 각각 전년 대비 -59.4%, -80.7%를 기록했다.

수입은 전년대비 32.0% 증가한 632억 2000만달러, 일평균 수입은 20.5% 증가한 27억 5000만달러다. 공급 불안정성 심화로 높은 수준의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계속되는데 따른 결과다. 작년 6월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한 이래 12개월 연속으로 높은 수입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입액도 작년 12월 처음으로 600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올해 2월(531억달러)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600억달러대를 기록 중이다.

지난달 원유·가스·석탄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147억 5000만달러로 전년동월(80.0억달러)을 60억달러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며 3대 에너지원 가격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인 가운데, 석탄은 유례없는 수준의 가격대를 기록하며 월 석탄 최고 수입액을 연달아 경신했다.

중요 산업생산 중간재인 반도체(28.0%)·철강제품(51.2%) 등도 크게 증가했다. 알루미늄·니켈 등 비철금속은 미국 연준 금리인상과 중국 지역봉쇄

등의 여파로 가격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전년에 비해 높은 수준의 가격대에 기반한 수입 증가세를 지속했다.

곡창지대 악재와 식량보호주의 확산에 다른 밀·옥수수 등 농산물 고가 행진도 계속되며 3개월 연속으로 20억달러 이상의 수입액을 기록했다.

높은 수출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수입증가율이 발생하면서 지난달 무역수지는 전달(4월, -25.1억달러)에 이어 17억 1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일본·프랑스·이탈리아·미국 등 주요국들도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며 무역적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주요 교역대상국 성장률 둔화에 더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수출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나갔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최근 배럴당 100달러 이상의 고유가를 비롯한 높은 수준의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이어지면서 무역적자가 2개월 연속 발생하는 등 적자 지속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2개 R&D 사업에 7474억... 원전강국 건설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에 3992억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에 3482억

정부가 원전강국 건설을 위한 대형 R&D를 본격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과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했다고 밝혔다. 두 사업에는 총 747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에는 2023~2028년까지 총 399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2030년대 세계 소형모듈원자로 시장 진출을 위한 차세대 SMR 노형 개발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소형모듈원자로란 기존 경수형 대형원전(1000Mw) 대비 용량을 줄여(300Mw 이하) 안전성을 높이면서도 모듈형 구성을 통해 경제성을 높인 소형원자로다.

미래 원전 시장의 게임체인저로서 부

상하고 있는 SMR 시장에 적기 진입해 원자력 기술발전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해 사업추진을 결정했으며, 이후 민·관 합동 사업기획을 거쳐 작년 9월 예타를 신청했다.

이번 예타 통과에 따라 2023년부터 혁신기술 개발과 표준설계를 수행할 예정이다. 2028년에는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혁신형 SMR이 타 노형과 차별화된 ‘비온드 SMR’이 될 수 있도록 2023년 사업 착수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업 기본계획 구체화, 사업예산 확보, 사업단 설립·구성 등을 면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은 2023년~2030년까지 총 3482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 연구 중인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해

체를 위한 현장적용 및 실·검증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안전하고 경제적인 상용원전 해체를 위한 선도기술 개발 및 검증 기반 구축’을 목표로 산학연이 참여하는 사업 기획을 거쳐 2021년 9월 예타를 신청했다. 이번 예타 통과로 2023년부터 현장 맞춤형 해체기술 개발 및 실증기반구축 등을 추진해 향후 국내 원전 해체에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적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2023년 사업 착수를 위해 사업예산 확보, 사업 계획 구체화, 다부처협의체 구성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해체 기술 고도화와 원전해체연구소의 실·검증 인프라 구축을 통해 향후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해체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국회 본회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특고·프리랜서 등에 6·7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배달 라이더 모습. /뉴스1

특고 200만원, 택시기사에 300만원 지급

정부, 8일부터 접수 이달중 지급
문화예술인은 내달중 접수·지원

이달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은 1인당 200만원씩, 법인택시·버스기사 등은 1인당 300만원씩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문화예술인과 저소득층은 7월부터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특고·프리랜서와 법인택시·버스기사에게는 6월 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 중 지원금을 각각 지급한다.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쿼서비스 기사,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캐디 등 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200만원씩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오는 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전에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별도 심사 없이 13일 지급된다. 신규 신청일 경우 지원 요건 등을 심사한 오는 8월 말쯤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손실보전금과 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법인택시·노선버스·전세버스기사는 1인당 300만원의 한시지원금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별로 3일 신청 공고를 할 예정이다. 소득 감소, 일정 기간 이상 근무 등 지원 요건 심사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소득이 낮은 문화예술인에겐 1인당 200만원씩 활동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달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뒤 7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저소득층에게도 선불 카드 형식으로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달 중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7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저소득층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정한다.

농축산물 할인 쿠폰도 지원한다. 1인당 1만원 한도의 최대 30% 할인 쿠폰은 9월 추석, 11월 김장철 전후로 지급할 예정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건설업, 마스크·드론 구입비 '관리비' 처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 일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개정

2일부터 건설업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마스크 구입, 드론 등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도 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해 산재 예방 목적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안전보건 관리비는 건설현장 산재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총 공사금액의 2~3% 내외로, 산재 예방 목적의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2일부터 건설사는 산재 예방, 작업 지휘·감독에 쓰이는 스마트 안전 시설·장비를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데 드는 비용의 20%까지 안전보건관리비를 쓸 수 있다.

스마트 안전장비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결합된 것으로 드론,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스마트 영상관제시스템, 유무선 통신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전모 등이 해당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해 요인 확인·개선에도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한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휴게 시설의 온도·조명 등을 설치, 관리하는 데도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다. /세종=원승일 기자